

추 도 사

무위당(無爲堂) 진관(眞觀)스님,
북한산 이곳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머무시더니,
다시 어디로 조용히 가시려 하십니까.

불자들의 사표(師表)이시며 비구니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圓寂)에 드시니, 후학 제자들과 수많은 인연들은 슬픔을 가누기 어렵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아무리 겸허하게 머무르려 하셨어도, 삼각산 봉우리 아래 바위와 수목마저도 스님을 따라 조화롭게 오늘을 이루었으니, 산문을 들어선 누군들 스님의 공덕(功德)을 모르겠습니까. 스님의 덕화(德化)는 계곡을 따라 더 넓게 흘러내려, 그 인연만 하여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복덕을 지을 일이 있으면 항상 앞에 서시고, 복을 받을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 남을 우선하였으니, 겸허한 스님의 삶 자체가 헌신하는 실천이었고 이곳 산하와 동화(同和)되었으며, 곧 진관사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생각하는 종단의 원력(願力)과 같이 미래의 짝을 위해 이른 시기에 토양을 다져오셨으니, 스님의 공덕은 진관사만의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도량(道場)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웃음으로 거닐고, 기둥에 기대어 의지하고, 그늘 아래에서 편안한 휴식을 가지며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을 사표로 삼은 후학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짓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모든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스님께서 걸으셨던 수행과 이타(利他)가 겸비된 행(行)을 따르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스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기억하는 인연들마다 추모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으니, 오늘 하루 후학들의 슬픔은 허락해 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금세
오셔서 불자들의 아름다운 행원(行願)에 미소로 화답해 주소서.

불기2560(2016)년 6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